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경: 예레미야
17장 7-13절

Tag: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 그는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뺏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10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2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 이시며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렘17:7-13)

율법주의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 같다. 천동설은 눈에 보이나 지동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진다.

율법을 배워서 알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현

상.

녹이 슬어있는 철봉 위에 흰색 페인트칠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 칠 위로 녹이 올라오는 현상.

철봉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 위의 녹은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이다. 미워하거나, 무정하거나, 탐욕스럽거나 더럽거나 게으르거나 망령된 언행들이다. 그 위에 흰색 페인트 칠을 하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악한 것들이 보이지 않으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페인트 칠 속에 숨어있다.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래서 문명사회는 이 마음을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 페인트칠을 해 놓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들이 본색을 드러낼 수 밖에 없게 된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심히 부패한 마음을 덮어 둔 셈이다.

이렇게 녹이 슬어버린 철은 고철이라고 한다. 철은 원래 쉽고 빠르게 녹이 쏜다.

그런데 이런 고철에 니켈과 크로뮴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면 스테인레스 강이 된다.

그러나 스텐리스 강은 전혀 녹이 슬지 않는 물질은 아니고 비교적 녹에 강한 물질이다. (니켈의 양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스텐리스 강처럼 되는 셈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녹이 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스텐리스도 관리가 부실하면 안된다.

-만약 성령으로 잘 훈련되지 않았다면, 또는 시간이 지나서 퇴색되었다면 그는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면서 경건생활에 힘써야 한다.

율법주의의 현상.

정죄하거나, 자기만의 레벨을 정해서 그 레벨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저지르는 죄악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자신이 정한 레벨에 미치지 못한자라고 여기면 함부로 대우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악한 행위들은 그럴만 하다고 여기게 된다. 왜냐면 녹은 녹이로되 흰색 녹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선적이다.

율법주의의 증상이란 결국 부패한 마음 때문에 율법을 대하는 태도나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순전한 마음으로 율법이나 복음을 대면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들을 말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더 심해진다. 그러므로 교회생활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부패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하다-도움을 받는다. 마음을 기대어 살아간다.

의뢰하다-믿고 부탁하다. 믿고 맡기다. 믿고 청구하다.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

-나의 건강과, 가족의 안위와, 나라의 번영을 하나님께 의뢰한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받아야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의뢰하면 안된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가족관계이며 이웃관계이다.

(-내가 남편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남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남편을 의뢰한다는 말은 다른 남자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8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

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은 지속적인 말씀의 교제를 의미한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형통하고 열매가 많으리라.

10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신다. 심장과 폐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관이다. 심장은 생각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맥박이 빨리 뛴다. 그러면 폐부는 산소를 더 많이 섭취하려고 더 크게 운동을 한다. 열이 오르게 되고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땀이 나고, 땀이 나면서 코 끝이나 뒷통수가 가렵다.

-하나님은 또 시험하신다. 이때의 시험은 test다. 시험에 좋은 점수로 통과해야 더 많은 복을 받는다.

-행위와 행실대로(행실은 행위의 결과물) 보응(상을 주심;인센티브) 하심.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특히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

-이 시대는 한국의 역사와 특히 근대사,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크게 유익하다.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책임있고 주체적인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실하고 경건하고 사명감이 있고 가정과 일터와 국가에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살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바람직하며 따뜻하고 겸손하며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허랑방탕하지 아니하며 비방하거나 망령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며

무식하지 아니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누추하거나 유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또 복을 누리는 삶이며 복을 쌓는 삶이다.

11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도 경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율법주의의 위험속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 기독교는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학습하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아멘!

율법주의는 감동을 말려 버리고 기적의 흔적을 지워버린다.

사랑보다는 미움

관용 보다는 무시함이 있다.

도착지점으로서의 자기사랑 : 출발지점으로서의 자기사랑

암적 : 생산적

자기위주 소비형 : 타인위주 소비형

<찬양예배>

제목 : 시장경제 이야기 2 성경: 마태복음 25장 20-21절

Tag: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시장기능=보이지 않는 손(아담 스미스); 가격결정, 가격의 신호기능.

시장 성공의 비밀;

가격의 신호기능

가격의 배분기능 -> 사익과 공익의 일치

합리적 이기심

가격의 신호기능. 가격 때문에 대단히 많은 생활의 변화가 유발됨. 배추의 가격이 오르면, 배추는 귀한 물건이 되고, 아껴 사용하게 됨. 가격이 온 국민의 삶을 조정함. 국가의 계몽운동과 상관없이 가격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 농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배추 밭이 인기가 높아짐.

가격의 배분 기능;1000원이 싸게 여기는 사람

1000원이 비싸다고 여기는 사람

각자가 다르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적용 판단하게 됨. 가격의 가치를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소비하게 됨. 그래서 과소비가 사라짐.

가격이 공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격을 결정해서 그 가격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만 생산공급하게하는 기능을 함.

효율적인 생산자들만 생산에 참여하게 하는 기능. 배분 기능. 국가가 이것을 개입해서 기능을 하게 되면. 거짓말 탐지기? 필요성? 누구에게 필요한가?

국가에게 가격 조정 기능을 부여하면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하게 됨.

경쟁과 이윤

경쟁의 비인간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음.

경쟁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고, 지는 사람은 비참하게 됨.

경쟁이 없는 세상은 행복할까?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

(약육강식의 논리, 정글의 법칙, 잔인한 논리, 신 자유주의, 강자독식의 논리라고 비판함)

경쟁은 자연의 법칙.

경쟁은 일종의 인센티브 장치이다. 보상의 차별화를 통해서 더 나은 실력과 노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유인장치이다.

선택, 계몽, 감시, 처벌 등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공산주의는 생각함.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을 무책임하고 무임승차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가난의 평등을 이루게 하는 것.

경쟁은 즐거운 것은 아니나,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유인장치이다.

성과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는 제도 장치이고 실용적 솔루션이다.

체코, 폴란드-동유럽 일부국가 시장경제로 전환 후 신경쇠약, 소화불량이 늘. 무책임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경쟁에 노출되다 보니 신경쇠약에 걸림.

그러나 그 이후로 경쟁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풍요로운 사회가 됨.

기업의 이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소비자를 착취하는 것일까?
(막스적 사고)

생산의 3대 요소; 토지, 노동, 자본. 노동-임금, 자본-이자, 토지-지대, 임대료. 단순한 생산함수.

20세기 들어와서 단순한 생산함수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생김.

-규모의 경제

-융합현상(방송+통신) 새로운 시너지, 네트워크 효과 발생.

-새로운 방식의 가치창조 가능하게 됨. 생산요소 3가지 보다는 4요소로서의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후에 기술도 어떤 투입의 산출물. 기술혁신이 가능하게 되는 투입요소가 무엇인가? -기술조차도 종속변수이며 그 배경은 기업가정신 또는 엔터프레니어쉽.

엔터프레니어쉽이라는 생산요소는 무엇으로 보상을 받느냐? 그것이 곧 이윤이다.

초과 이윤의 배경에는 기술혁신이 있었다.

남이 만들지 못하는 기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배경임.

경영능력의 댓가로서의 이익.

어떤 기업이 정신이 좋은 기업가정신인가? 수익성의 차이의 요인은?

-위험부담에 있다. 위험부담이 클수록

-남과 똑 같으면 남 보다 더 벌 수 없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존재함. 불안함. 기업가 정신이란 남과 다르고자 하는 시도, 리스크의 연장선상에 있고, 리스크가 많을수록 이익이 많을 수 있다.

위험한 투자에 수익성이 높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높은 리스크에서 높은 수익이 가능하게 됨.

high risk high return.

-초과 이윤은 어떻게 배당되어야 하는가?

-연봉은 리스크 제로. 회사가 이익을 냈다고 해서 더 받아갈 수 없다.

-초과 이윤은 얼마나 위험부담을 졌느냐에 달림.

-초과 이윤을 노동자나 부동산소유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본질과 역할

-기업을 정부는 보호함. 장려함.

-기업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독특한 역할이 있다. 생산, 공급, 고용, 소득창출, 이익에 따른 세금을 내기 때문에 기업은 국가에서 중요함.

-기업은 영리를 추구한다. 이해관계; 주주, 채권자, 소비자, 근로자, 협력업체, 세금 징수 국가.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 있음.

왜 이익을 내야 하는가?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야 하고, 이익이 없으면 도산을 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익을 내야 함.

-기업은 왜 생기나? 분업과 관리조직이 있다.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업 시스템이다. 꼭 내부적인 직원들에게만 맡길 필요가 없고, 아웃소싱을 하면 됨.

-위탁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원을 두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이다.

-기업의 환경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를 유지한다. 유기체와 같다.

-기업 진화론;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효율과 합리를 추구하면서 진화하는 유기체이다. 변화와 진화에 실패한 기업은 도태된다.

-우리나라 기업 위기는 97년 외환위기. -이때까지의 기업은 정책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면서 그것이 가능하

게 됨.

-기업은 이윤추구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인질작전으로 정경유착을 가능하게 됨.

-상호 빚보증, 차입경제. 대마불사 기업문화 형성. 1억과 천억의 차이가 있음.

-이익추구 생산성 보다는 정경유착 차입경제가 기업문화를 퇴락시킴.

-외환위기가 기업들에게 큰 충격. 16개 대기업이 없어짐. 기아자동차 현대에 흡수. 대통령도 기업을 살릴 수 없게 됨. 투명경영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

-투명경영:시장의 신뢰, 소비자의 신뢰,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야 함.

-2008년 금융사태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두. 윤리적 소비자들의 대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이익은 사유재산. 사회환원의 강압적 요구는 일종의 배임행위일 수 있다. 부의 사회환원이 기업의 목적은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고용을 창출하고 좋은 임금을 주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기업의 사회환원이란 자발적 기부.

-나쁜 기업이란 고용을 합리적으로 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나쁜 물건을 떠 넘기고,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기업.

-좌파논리에서 사회적 책임론을 비교해 보는 도표

삼성전자와 유한양행의 비교

유한양행은 좌파논쟁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기업

*1970년대에는 삼성전자와 외형이 똑 같았던 유한양행.

구분	삼성전자	유한양행
창업	1968	1926
매출액	165조	6,792억
법인세	3조 4,249억	126억
임직원수	10만 1,970명	1,511명

2011년 금감원 공시자료

유한양행은 좋은 회사.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고, 회사를 자녀들에게 승계하지 않음.

이런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책임, 기업의 존재의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기업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했는가를 비교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피라미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과연 정책의 결과인가?

GDP=국내총생산

소득의 본질;소득은 누군가의 지출이다.

돈을 버는 원리;고객가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는 것이 소득.

생산이 없으면 소득은 없다.

수출정책. 수출액에 준하는 금융지원을 행함. 이윤동기를 정부가 책임짐.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는 대신 높은 학구열로 인한 훌륭한 훈련 가능하고 값싼 인력이 큰 장점.

50년대의 경제는 일제하에서 부를 축적한 자들. 군납이나 적산 불하(敵産拂下)(일본 소유의 기업을 싼값에 인수 받아 운영)

혁신 보다는 지대추구형 기업가. 면허. 입찰. 미국의 물자를 불하받아 판매하는 자들. 인간관계 좋고 빼이 좋으면 부자가 되었던 시대. (그러나 그 이후로는 환경이 다름)

정부의 인센티브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반응한 기업들의 노력으로 60년대 경공업이 성공하게 됨.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 부자가 됨. (정부의 정책) 신발, 의류, 섬유, 장난감, 가발.

70년대는 중화학공업으로 성장 이룸. 대만은 국영기업 체제로 가게 됨. 그러나 국영기업이 갖는 한계가 있음. 막대한 투자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어려워짐. 대만의 국영기업들이 외국기업들에게 흡수되어 버림.

남미 국가들은 구데타 때문에 부패 정변 등이 반복 되면서 불가능하게 됨. 또 국영기업들이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부패가 끊이지 않음.(떡튀-경영권자들이 돈을 빼 먹고 됨)

한국은 민간기업들이 경영함. (포철만 빼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은 초기부터 직접 민간기업들이 참여함. 대기업 중심의 기업군이

형성됨.

-정부의 특혜 논란이 일어남. 정부는 보호 육성하게 됨. 그러나 중화학공업을 성공하게 되는 배경에는 검증된 기업인들에게 정부가 경영을 맡겼기 때문임. 민영화가 국영화보다 훨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공기업은 비효율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철도 가스 전기 등의 기반 (인프라) 시설 공기업의 문제가 심각함.

공기업은 왜 비효율적인가?

-외부적 요인;아무리 적자가 나도 망하지 않는다.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매움. 정치인들의 요구와 압력에 휘둘림. 정치적 이슈, 지역 안배 등 때문에 의사가 결정됨. 주무부처가 있음. 이들이 지시 통제함. 경영을 잘못해도 사장 책임이 아님. 독점 대기업+노조+언론+정치인.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함. 공룡이 되어서 바뀌기를 거부함. 고비용 저효율.

(민간기업이라도 이런 속성을 가진 기업들이 있음. 방위산업, 금융산업,-마치 국가 공무원처럼 자신들을 여김. 일부 강성노조의 대기업)

-내부적 요인;기업의 목표가 모호함. 공익? (민간기업은 이익) 경영을 잘 못해도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 그랬다고 핑계댐. 일을 잘 못해도 일처리가 성과 보다는 과정이나 절차를 따짐. 민간기업은 성과 중심. 경영진의 비전문성. 낙하산 임명. 정권이 바뀌면 성과가 좋아도 연임 불가능. 인센티브가 약함. 비효율의 원인이 됨.